



자랑스러운 거룩한 두 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집들은 두 앞발을 가지고 있으나 사람은 앞발이 변하여 두 손이 되었다. 우리 인간은 두 손으로 많은 일을 하며 인류문명을 이룩하여 왔으며 말은 일을 잘한 자랑스러운 손의 덕택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농촌에서 속담에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하다"라는 말이 있다. 할 일 앞에서 눈으로 보고 "이 많은 일을 언제 다 할 거냐" 하지만, 부지런한 두 손은 꾸준히 일하여 끝내기 때문이다.

사람은 손을 가지고 일하며 손을 통해 창조하고 손을 통해 사랑을 증명하며 하느님은 우리 인생의 손을 사용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 우리의 손이 선한 일을 하고 잘 섬기는 손이 되게 해야 함은 하느님의 바라는 뜻이다. 손을 통해 서로 만나면 손을 마주 잡는 악수를 한다. 악수해 보면 부드러운 일 안 하는 손과 일을 많이 하여 거칠어진 손을 본다. 가난한 집의 살림을 이끌어 가면서 일하는 어머니의 손, 논밭과 일터에서 일한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은 자랑스러운 손이다.

손은 근면의 상징이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손으로 하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일하여 좋은 일을 해내는 자랑스러운 손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손으로 일하여 손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능 물질 기술과 지식은 하느님과 같이하여 이룩한 것이므로 결과의 영광을 하느님께 돌려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손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 손의 활동에 따라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며 잘 섬기는 거룩한 손, 선하고 의로운 손이 되게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손이 주먹을 쥐는 것은 뜻을 이루겠다는 다짐이며 투쟁을 뜻하지만, 피친 손바닥 손은 모든 것을 배풀고 용서하고 아무만지는 너그름을 뜻하고 있다. 두 손을 마주치는 손뼉 치기는 남을 칭찬하고 축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에 좋다 한다. 손바닥에는 몸의 축소판 혈이 있어서 자극하여 건강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칭찬하고 손뼉 치

는 선한 손이 되어야 한다. 부지런한 손은 인생을 성공자로 만든다. 손이 남을 돕는 부지런한 손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주먹을 쥐고 있는 투쟁의 손이 아니라 항상 부드럽게 펴고 남을 도와 일할 수 있는 손을 가져야 한다. 항상 펴고 있는 손은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손이다. 손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거룩한 손으로서 천국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 탈무드에 보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심판을 손을 보고하는데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랍비의 부드러운 손을 보고 너는 기다리라 했고,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손을 보이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며 부드러운 손을 보였는데 너도 기다리라 했고, 세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많은 사람을 대접하는 식당에서 일했다 하며 거칠어진 손을 보였는데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라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서 하느님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의 평가를 손을 보고 했으며 많은 사람을 위해 입으로 가르친 부드러운 손도 아니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하는 손도 아니며 수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하여 거칠고 무딘 손을 가진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나의 손을 보면서 세상에 나와서 지금 손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를 판단하고 부지런한 손 거룩한 손을 만들며 살아야 한다.

우리의 손은 어떤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남달리 잘하는 전문성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물건을 잘 만드는 기술자의 전문 손 기능, 새로운 기법으로 그릇을 만드는 도공의 손 기능, 음악 미술 체육의 예술에서 특기를 발휘하는 예술인의 손 기능은 자랑스러운 손이며 하느님께서 깨우쳐 주신 인류의 재산이므로 죽기 전에 많은 사람에게 손의 기능을 전수하여 기능이 소멸하지 않게 해야 한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며 이룩한 자랑스러운 두 손의 기능은 보호받고 전수되게 해야 한다.

칼럼

산림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기고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



요즘 들어 뉴스나 신문을 통해 근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아까운 목숨을 잃는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근로 현장이란 것이 아파트 공사장 등 건설 현장을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일 것이다. 높은 데서 작업하고 무거운 물체를 옮기고, 중장비들이 오가다 보니 사고가 자주 일어나겠지 막연히 생각하게 되지만 산림사업 현장의 중장비도 없고, 비탈지기는 하나 땅에서 하는 작업이고 하니 크게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처음 산림공무원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산이었다. 산림사업을 실행, 관리, 감독하면서 일상이 산과 함께였지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자연 속에서 일하고, 흔히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일반적인 건설, 화학, 철강 등 위험에 항상 노출됐다는 사업장과는 달라서 일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사고 건수에 비해 과거에는 사고가 나도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거나 그 빈도에 대해 체감을 못 한 것뿐 산림에서도 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다. 임업 재해율을 보면 임종평균 재해율(0.58%)보다 약 2배, 농업에 비해 약 0.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업보다 높은 것은 광업(22.89%) 정도이다. 오랜 기간 나무를 심고 가꾸으면서 수목이 대형화되고 이에 벌채·숲가꾸기·병해충방제 등에 벌목이 수반되는 사업이 확대되면서 재해 발생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임업분야 하루 평균 재해자는 2.8명, 사망자는 0.05명이나 최근에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임업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듯 이제는 임업 분야에도 항상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음을 인식하고 사업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전환해야 할 때이다. 그 무엇보다도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견고히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24. 1.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면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은 둘째치고라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자는 철저한 책임감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핵심 사항 중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해 꼭 수행하여야 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직접 일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직접 일하는 분이 어떻게 위험하고 어떤 걸 보완하면 좋으냐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행동 매뉴얼로 작성하고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사고 시 조속한 대처를 통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사업장에 대해 강조한 사항을 철저히 실행하여야 한다. 나는 다 알고 있고 사고 나면 다 대처할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해서도, 형식적인 행위만 이루어지는 안된다. 한명 한명 실제로 훈련해보고 이행사항을 확인하면서 내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높이고 실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소중한 생명을 복구, 재생할 수가 없다. 푸르른 산은 이제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는 가장 친근한 친구이다. 그런 숲에서 안전사고 발생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일 것이다.

기고

청소년 마약사범 대책은?

진훈관 보성경찰서 별교파출소 순경



최근 마약거래는 sns나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10대 등 젊은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포털사이트 등에 마약관련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정보를 담은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주로 유흥가에서 빈번하던 마약범죄가 청소년들에게 까지 도달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으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전년도 대비 35% 증가하였고, 청소년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316.7% 급증했다. 이중 15~19세 미성년자가 75명 이었고 15세 미만도 4명이 있었다.

마약류의 중독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청소년 마약사범은 증가하는 전체 마약사범을 늘어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약의 문제점들은 중독성과 의존도로 인한 높은 재범률이라 할 것이다.

인론이나 sns를 통해 비춰지는 모습들이 마약을 하여도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줌으로써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마약 사범들이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처벌에 그치지 않고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고, 마약거래가 대부분 sns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 소속 욕구가 있는 청소년의 '포래문화'의 영향으로 친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마약 감발', '마약 핫도그', '마약 배게' 같은 이름을 단 상품이 팔리는 등 '마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점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려 청소년들이 마약이란 단어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 청소년 마약사범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며 만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실행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청소년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부모와 주변의 도움은 필수적이고 특히 청소년은 주변 포래의 영향을 받아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마약의 위험성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영상 또는 여러기관의 sns에 게시시켜 집단력과 호기심,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지와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절실하다.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청소년들의 마약에 관한 호기심을 두려움과 불쾌함으로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교육을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접해지지 않고 범죄가 증가 증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정지도와 학교(기관)의 예방교육, 등을 원활히 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학부모, 기관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 운천로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포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